

포천시태권도협회 조복현 회장 就任

“태권도를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



포천시태권도협회가 지난 16일 여성회관에서 신임 조복현 회장에 대한 취임식을 마련한 가운데, 많은 내빈들이 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지난 16일 여성회관에서 신임 조복현 회장(52·사진)에 대한 취임식을 마련했다. 박운중포천시장과 최대중 포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0명과 일동중학교와 갈월중 태권도 선수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은 ▶조복현 회장에 대한 협회기 수여 ▶인증서 및 위촉패수여

▶김인만 회장에 대한 표창패 ▶남순우 부회장에 대한 공로패 ▶신임부회장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인만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협회를 하면서 도(道)와 예(禮)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임기중 기대에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임 조복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며,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을 획득하는 종목이 태권도다”며 “태권도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을 도모하고 장족의 발전이 거듭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계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된 부회장은 ▶남순우 ▶나근수 ▶박도현 ▶정남용 ▶임영선 씨로 총 5명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신문운영위원회(회장 황광익)는 지난 18일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동 필로스C.C에서 2005년도 첫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탐방 | 지역체육회 ⑥ 신북면 체육회 회장 강병만

지역체육발전 가능성 제고위해 자치역량 강화



강병만 회장 신북면 체육회

1980년대 초반에 결성,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신북면 체육회는 2005년을 지역 체육회의 자치기반 정착을 목표로 회원 및 주민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2001년부터 신북면 체육회를 이끌어 지역체육회의 조화와 단합을 위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생활체육의 양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병만 회장으로부터 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강병만 회장은 임기 3년의 체육회장을 연임하며 5년간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신북면 하심곡에서 (주)복지종합토건을 운영하고 있다. 신북면 체육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내북, 외북, 산안지역에 각각 부회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체육회 감사 역시 지역별로 1명씩 배분되어 있다.

강 회장은 이같은 체육회 구성에 대해 “신북면은 동두천시보다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다”며 “넓은 지역의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른 발전을 위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부회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북면 체육회는 27개 리 이장을 담당 운영위원으로 두고 일반이사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년중 행해지는 종목별경기참가 및 지원, 시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북면 체육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간 운영비를 6천만원으로 편성해 적극적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뒷받침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금의 예산은 지역체육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것”이라며 “이는 연간 치러지는 각종 대회와 지역 학생들의 체육행사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체육회의 기금을 튼튼히 해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예전의 지역체육회는 포천시체육회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가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천시체육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체육회 스스로 일련의 기획이나 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자치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북면은 체육회를 위시해 많은 생활체육종목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각종대회에서 항상 4강권에 진입하는 신홍강호 축구팀인 신북초기독교회와 신포전초기독교회,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배구동호회, 궁도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씨름과 육상, 수영 등의 종목도 활성화돼 있다. 강 회장은 “각 종목의 선수 수급은 기존의 선수층에 각 대회 때마다 신규선수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인근 군부대와 친선경기와 교류 등을 통해 선수 수급은 원활한 편이다”고 밝혔다. 신북면은 최근 삼성당리 삼성중학교에 라이트 시설을 건설해 축구동호인들이 뿐만 아니라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 야간에 학교를 찾는 생활체육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강 회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역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며 “시민들이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까지도 참여하는 상황에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지역체육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6 포천시궁도연합회 김길태 회장

생활체육 자리매김 위한 도심 國弓場 건립해야

포천의 궁도는 청호정(신북면)에서 시작해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 3위, 경기도생활체육대회 1위 등 발군의 실력으로 전국에 포천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종목이다. 포천의 궁도는 현재 동부정(화현면), 대군정(신북면), 용호정(〃), 국사정(〃)을 중심으로 각정에 평균 30여명씩으로 총 120여명의 궁도인들이 국궁의 전통을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 취임해 지난 5년여간 포천시 궁도연합회를 이끌며 국궁의 보급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김길태(65·사진) 회장으로부터 포천 궁도의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1988년부터 궁도를 시작했다는 김 회장은 “어릴적부터 소를 길고 내기를 하며 화합과 친목을 위한 국궁대회를 본 기억이 난다”며 “국궁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포천에서 오랜시절 전해 내려온 전통무예이자 놀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예(禮)와 의(義)를 중시하는 궁도는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혼자서도 즐겁게 수련할 수 있으며, 정신 수양과 건강에도 좋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포천의 궁도는 30여년전 대군정(과거 청호정)에서 출발, 80년대 동부정을 거쳐 90년대 국사정과 용호정이 생겼다”며 “점진적으로 생긴 궁도장이 포천 전역에 걸쳐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적으로 1만4천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해 있고, 경기도에만 70개의 정이 분포한다”며 “포천의 궁도가 아직 전국 수준은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각종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포천의 궁도인구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들의 궁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특히 젊은층의 궁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김 회장. “경기도의 각종 대회에는 대부분 40대와 50대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반면 포천은 고령의 선수들이 출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길태 회장 포천시 궁도연합회

이와 같은 이유로 국궁 선수를 양성해야만 한다는 것이 포천 궁도인들의 소망이자 의지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몇 년 전 화현초등학교에 학교관계자들과 협의 후 국궁부를 창단했지만, 1년정도의 운영 끝에 호지부지된 적이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방과후 학원 등 사교육으로 인해 국궁에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고, 시작과는 달리 국궁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생들과 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궁에 대한 진로 등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포천의 각 정 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궁도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고, 경기도의 이천 등 5개 지역에서 고등부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며 “고등부에 이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에서 국궁선수를 육성하고 취미활동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단 이상의 명궁의 등급에 오르게 되면 시에서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 선수로서 성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선수 육성 역시 국궁의 보급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궁도장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발걸음 하지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다”며 “국궁을 통해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도심과 관내 읍면동에 많은 국궁장이 설치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제15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포천의 궁도선수들.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 생산 품 목
내수용, 수출용, 식음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박스 종류
골판지박스, 톨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대표 이희선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팩스 : 031)534-5756